

分類目錄의 推理性에 관한 研究

유 소 영*

<目 次>

- | | |
|----------------------|------------|
| I. 序 論 | 題의 排列의 論理性 |
| II. 推理란 무엇인가 | 2. 助記性 |
| III. 分類目錄이 推理를 돕는 要素 | IV. 結 論 |
| 1. 主題分解의 妥當性 및 分解主 | |

I. 序 論

圖書館目錄을 利用하는 사람들은 圖書館資料와의 對面을 크게 나누어 두 가지 方法으로 하게 된다. 하나는 書架에 排列되어 있는 資料를 직접 접하는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目錄을 통해서이다. 利用者가 접하게 되어 있는 書架排列과 目錄의 排列은 그 排列方法 如何에 따라 主題를 分類順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중에서 主題를 分類順으로 놓을 경우를 생각할 때 利用者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分類順排列을 위하여 分類者나 分類表 考案者들이 고려하게 되는 것은 分類構造의 짜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짜임의 分類構造가 利用者에게 도움이 되는 分類構造인가 하는 문제는 分類順資料나 分類目錄에 접근하여 資料를 찾으려는 利用者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分類構造는 찾고자하는 대상을 自然語(用語)를 자모순으로 排列한 資料體에서 機械的으로 檢索해내는 檢索方法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가진 思考力의 힘을 빌어 推理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며, 分類構造의 組織如何에 따라서는 人間의 思考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分類構造가 人間의 頭腦作用, 즉, 推理作用이 필요한 要素를 제대

* 建國大學校 圖書館學科教授

로 구비하고 있을 때는 利用者가 書架에 접근하거나 分類目錄에 접근하여 어떤 對象을 찾으려 할 때 資料의 排列順次가 안내하는 主題展開에 의하여 그가 찾으려는 對象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對象을 점차로 확실하게 규명해 가면서 찾을 수 있도록 利用者の 推理를 돕게 되는 것이다.

本 論文의 目的은 分類構造에서 利用者の 推理를 돕는 要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 論文의 趣旨에 해당되는 論議의 對象은 分類構造를 그대로 반영하는 書架排列과 分類目錄이 될 것이나 書架排列보다는 分類目錄이 主題의 表出面에서 더 자세하고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論述의 번잡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分類目錄만을 따로 떼어 문제 삼기로 한다.

本 論文이 目的하는 分類構造에서의 推理를 돕는 要素究明을 위하여 먼저 推理란 무엇이며, 어떠한 要素로 이루어지는가를 檢討하고, 다음으로 이 推理의 要素들이 分類目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分類目錄의 利用의 實際를 따라 研究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는 새로운 分類構造를 계획하거나 현존하는 分類構造의 改良을 시도할 때, 그 새로운 考案이 利用者の 思考力, 혹은 推理力을 도와서 빠르고 능률적인, 또 정확한 檢索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적지않은 參考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推理란 무엇인가

推理란 論理性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論理學의 대상이 論證과 推理로서 古典論理學이나 現代의 記號論理學에서 다 같이 이 문제를 課題로 다루고 있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推理하는 일은 論理的으로 思考하는 일인 것이다.

국어사전에는 推理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알지 못하는 사실

을 미루어 생각함[Reasoning]²⁾이라 풀이하고 있다. 생각함, 즉 思考는 推論과 어떤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 思考와 推論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推理들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³⁾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現象의 條件(前提, 證據, 또는 判斷)을 가지고 그것들이 가져올 結果(結論)를 推理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推理의 確實性的程度를 認識하는 것”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推理의 確實性的程度를 認識하는 과정은 출발점으로서 시인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命題(判斷, 證據, 前提, 條件)와 이를 근거로하여 도달한 종국점을 이루는 命題(結論, 結果)들과의 關係에 관해서 論理的 分析, 즉 “結論과 그 結論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證據 사이의 關係”⁴⁾를 해명하는 論證이 중요하게 된다.

웨즈리 C. 새번은 이 論證과 推理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推理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論證과 推理 사이에는 밀접한 평행관계가 있다. 論證과 推理는 둘다 서로 關係를 맺고 있는 證據와 結論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차이는 論證이 言語의 實在(linguistic entity), 즉 일련의 陳述들인데 반해서 推理는 言語의 實在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첫째로 論證의 結論은 陳述이다. 推理의 結論은 意見, 信念 또는 그 비슷한 어떤 것이다. 입증된 陳述는 論證의 結論이다. 이와 비슷한 區別이 입증된 信念 및 意見과 입증되지 않은 信念 및 意見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어떤 信念들과 意見들을 입증하는 證據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證據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입증된 信念이나 意見은 推理의 結論이라고 할 수 있다.⁵⁾

위의 인용을 통하여 우리는 推理의 結論으로 입증된 信念 및 意見을 취할 수 있으며, 입증된 信念이나 意見에 대해서는 證據를 가지고 그 證據와 推

2) 論理學/웨즈리 C. 새번 저; 광강재 역. — 서울: 박영사, 1982. — p. 24.

3) 논리학/문정복, 이양기 공저. — 서울: 형설출판사, 1983. — p. 12.

4) 論理學/웨즈리 C. 새번 저; 광강재 역. — p. 12.

5) 論理學/웨즈리 C. 새번 저; 광강재 역. — p. 25.

理의 結論인 信念 또는 意見의 양자와의 關係에 관해서 論理의 바르고 바르지 못함을 규명함으로써 즉, 論證함으로써 推理의 確實性的의 程度를 認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推理의 確實性的의 程度를 認識한다는 것은 곧 일단 推理한 것이 어느정도 確實한가 論證으로 檢證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물론 推理를 행하여 입증된 信念 및 意見에 도달하는 실제의 과정은 論證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 그러나 推理는 論證의 性格과 要素를 지닌다. 推理를 행하는 實際의 過程에 대해 웨즈리 C. 새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推理하는 일은 心理的 活動이다. 推理란 證據로부터 結論을 이끌어내는 일, 즉 다른 意見들이나 信念들을 근거로 하여 특정한 意見이나 信念에 도달하는 일로 이루어진다.⁶⁾

推理는 證據로부터 結論으로 옮겨가는 過程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나 推理가 이루어지는 實際에 있어서는 思考(thinking), 推論(reasoning), 推理(inferring)는 주어진 證據로부터 적절한 論理的 段階를 거쳐 結論에 도달하는 절차에 의한다고는 할 수 없다.

證據가 항상 結論보다 먼저 제시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結論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結論의 옳음을 입증하거나 그릇을 밝혀줄 證據를 발견해야 한다. 때로 우리는 약간의 證據를 가지고 結論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완전한 推理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證據를 발견해야만 한다. ...마침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證據와 結論에 이르게 된다.⁷⁾

推理는 前提가 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意見 또는 信念으로부터 結論이 되는 다른 意見 또는 信念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推理가 이루어지는 실제의 행위는 성격상 論理的 段階를 따라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證據와 結論 및 그 양자간의 論理的 關係를 포함하는 論證과 같은 要素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推理의 結論을 檢證하는 데는 論證을 방법으로 사용한다.

6) 論理學/웨즈리 C. 새먼 저 ;곽강재 역. — p.25.

7) 論理學/웨즈리 C. 새먼 저 ;곽강재 역. — p.32.

Ⅲ. 分類目錄이 推理를 돕는 基本要素

分類構造를 그대로 반영하는 分類目錄을 통하여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대상을 推理해 가면서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分類構造가 目錄을 이용하는 사람이 推理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要素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目錄의 이러한 要素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필자는 우선 앞장에서 推理의 意味와 推理를 성립시키는 要素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장에서는 分類目錄이 推理를 성립시키는 어떤 要素들을 가질 수 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主題分解의 妥當性 및 分解主題의 排列의 論理性

우리는 앞장에서 推理는 論證과 平行관계가 있으며 證據와 結論 및 그 양자간의 論理的 關係를 포함하는 論證과 같은 要素로 성립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 論證의 要素 즉, ① 證據와, ② 結論 및 그 ③ 양자간의 關係를 各 要素間的 關係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論證은 論證의 前提들을 結論에 대한 論據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이 ‘結論에 대한 論據로 前提들을 제시하는 일’은 두가지 측면을 갖는다. “첫째는 ‘前提들이 事實에 관한 陳述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 事實들이 結論에 대한 證據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⁸⁾

이 論證의 두 가지 側面은 論證과 같은 要素를 지니는 推理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側面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目錄을 檢索하면서 찾아가는 대상을 推理할 때 첫째로 前提들로 나타나는 目錄上的 主題들은 하나하나의 目錄에 있어서 事實이어야 할 뿐 아니라, 둘째로 目錄에 나타나는 이 事實들(실제로는 目錄의 主題)이 證據의 役割을 함으로써 利用者가 찾아가는 對象, 즉 結論에 도달하도록 推理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目錄利用의 全過程을 分析하여 이 두가지 側面을 추출해보면 目錄이 推理行

8) 論理學/웨즈리 C. 새먼 저 ;곽강재 역. — p.16.

를 도울 수 있는 要素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目錄利用者가 취하는 目錄檢索時의 行爲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目錄利用者의 行爲는 目錄利用者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찾고자하는 對象(主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아직 밝혀지지지는 않았지만 推理의 結論에 해당하는 意見 또는 信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目錄利用者는 分類目錄의 어느 部分, 즉, 어느 類, 또는 어느 綱, 目으로 접근하면 그가 찾고자 하는 특정한(specific) 主題에 연관된 主題들이 밀집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豫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豫상(推理)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聯關主題들에 대한 知識이나 이에 關連하는 어떤 想像, 直觀的 感覺 등을 目錄利用者는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知識 想像, 直觀 등은 目錄利用者가 이미 알고있거나 이미 아는 것과 의 關에서 알 수 있는 사항들이며, 이 중에는 妥當한 推理를 전개할 때 證據로 쓰일 材料들이 들어 있다. 이 항목들이 곧 推理의 前提에 해당하는 意見 또는 信念인 것이다. 우리는 또 이 推理의 前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目錄을 검토할 때 目錄上에 나타나 있는 主題(概念)들을 생각할 수 있다.

세번째로 우리가 目錄利用者의 行爲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目錄을 검토하는 過程인데 이 過程에서 目錄利用者의 知識과 想像, 直觀 등은 目錄上에 記述되어 있는 主題들(대체로 세분된 主題로 간주할 수 있다)과 만나게 된다. 이 만남에서 目錄利用者는 目錄에서 보는 主題를 단서로하여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한 知識들, 想像, 直觀 등을 떠올리고 재연시킬 것이며, 이러한 過程에서 目錄上의 主題들과 目錄利用者의 知識, 想像, 直觀들은 目錄利用者의 머리 속에서 어떠한 論理體系로 構造化될 것이다. 그리고 이 構造化된 論理體系 속의 '어느 지점'에 目錄利用者가 찾고자하는 對象의 主題가 놓이게 될 것이다. 일정한 順次로 놓여 있도록 되어 있는 숫자체계에서 그 어느 중간 혹은 어느 끝에 숫자가 빠져 있을 때 그 빠져 있는 숫자를 쉽게 추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일정하게 體系화된 論理的 構造的 主題들 속에 놓이게 되어 있는 찾는 對象의 主題를 우리는 推

理할 수가 있다. 여기서 독자들은 目錄利用者의 머리 속에서 論理體系로 構造化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人間의 記憶體系를 研究한 사람들의 意見이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윙필드(Wingfield)와 번스(Byrnes)는 記憶에 관한 研究를 망라적으로 소개한 기술보고서적 저술 「人間記憶의 心理學」에서 “記憶은 體制化된다⁹⁾고 단언하고 있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Batlett의 理論은 記憶研究에서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理論으로 記憶材料는 意味있는 關係로 體系化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새로운 情報는 概念的 構成으로 體制化”¹⁰⁾되어 再構成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때 얻어지는 새로운 情報는 우리의 記憶속에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情報와 섞이어 再構成된다는 意味이며 이 再構成은 論理的 體系로의 構造化를 뜻하는 것이다.

意味記憶의 網狀모델을 研究한 사람들은 하나의 長期記憶이 言語的인 항목들(그리고/혹은 그것들의 概念的인 對照物들) 사이의 聯合들의 “網狀”으로 나타내지며, 이러한 要素들 사이에는 論理的 段階들, 體制下의 位階의 構造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實驗을 통하여 檢證해 보이고 있다.¹¹⁾

이외에도 일상적인 간단한 일들까지도 (음식접가기, 빠스타기 등) 우리는 그것을 記憶속에 體制化하고 있다는 研究들도 보고되고 있다.¹²⁾

이러한 研究들을 미루어 생각할 때 目錄의 利用過程에서 目錄利用者의 頭腦活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利用者가 認識하는 主題들은 그가 目錄을 檢索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의 머리속에서 論理的으로 構造化되는 것이다. 문제는 目錄을 利用하는 동안 目錄에 記述된 主題들과 目錄利用者의 知識, 그의 想像, 直觀 등이 目錄利用者의 머리속에서 構造化될 때 그가 기왕에 가진 知識과 想像, 直觀 등은 그가 보고

9) 人間記憶의 心理學/Arther Wingfield, Dennis L. Byrnes 저; 李寬鎔, 金基重, 朴泰珍譯. — 서울; 法文社, 1984. — p. 111.

10) 人間記憶의 心理學/Arther Wingfield, Dennis L. Byrnes 저; 李寬鎔, 金基重, 朴泰珍譯. — p. 99.

11) 人間記憶의 心理學/Arther Wingfield, Dennis L. Byrnes 저; 李寬鎔, 金基重, 朴泰珍譯. — p. 115—120.

12) 人間記憶의 心理學/Arther Wingfield, Dennis L. Byrnes 저; 李寬鎔, 金基重, 朴泰珍譯. — p. 135—139.

있는 한장 한장의 目錄의 主題를 실마리로 하여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한장 한장의 目錄에 記述된 主題가 論理的 體系로 놓여 있을 때 目錄利用者가 가진 知識과 想像, 直觀은 그 論理體系를 따라 再認되고 回想되어 나올 것이며, 자연적으로 그 構造化는 前提와 結論이 論理的 關係를 갖는 構造를 創出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目錄利用者가 찾고자 하는 對象을 推理해 가면서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目錄에 記述된 主題들이 論理的 體系로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다. 目錄에 記述된 主題들이 論理的 體系로 되어있다 함은 分類構造가 論理的 體系로 되어 있어서 分類構造를 형성하는 要素들이 論證 혹은 推理가 성립되는 關係를 갖는다는 뜻이며, 따라서 分類構造도 論證이나 推理가 지니는 두가지 側面을 갖는다는 意味이다. 이 두가지 論證과 推理가 지니는 側面은 첫째 前提들이 사실에 관한 陳述이어야 하고 둘째, 그 事實들이 結論에 대한 證據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分類構造에 대입시켜서 다시 적어본다면 첫째, 分類構造를 構成하는 각 要素들(前提들)이 事實에 관한 陳述이어야 하고 둘째, 그 事實들(構成要素들, 前提들)이 論理的 分類體系(結論)에 대한 證據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分類의 概念을 이 두가지 側面に 비추어 檢討해 보기로 한다. 分類의 概念은 같은 主題를 같은 것끼리 모으므로써 다른 것과 구별하고 그 구별된 모임들의 順序를 중복없이 정하되 그 順序에 인위적으로 記號를 붙이는 것이다. 이 分類의 概念定義에는 두개의 概念이 들어 있다. 즉, 구별된 여러개의 모임이라는 概念과 그 모임들의 順序라는 概念이다.

우리가 ‘分類한다’고 할 때 分類하는 일은 分類하는 文獻의 자연어적 주제를 分類表의 言語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文獻을 分類하는 것은 그 文獻의 主題를 分析하여 즉,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으는 일을 하여 分類構造의 각 構成要素를 나타내는 記號로 번역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分類할 때, ① 文獻을 分析하여 같은 것을 같은 것끼리 모아준 結果가 事實이나를 결정하는 일은 分類構造에서 그 分類構造의 構成要素가 事

實이나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 다음으로 파악된 主題들의 모임들의 順序에 관한 일로서, ② 그 파악된 事實들을 어떻게 論理的으로 놓느냐 하는 결정은 즉, 파악된 事實들을 前提로 하여 妥當하고 바른 推理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결정은 分類構造에서는 分類構造의 構成要素들이 論理的으로 놓여서 推理를 돕는 分類體系의 證據로 제공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하한 分類構造라도 妥當하고 바르게 推理를 도울 수 있는 分類構造가 되려면 위의 두가지 側面을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대체로 익숙한 DDC 나 KDC, LCC 등을 살펴보면 우선 分題表의 構成要素로 되어 있는 나열된 主題들에 대해 생각할 때 이들 分類表의 本表에 命名된 主題들은 現象으로 나타난 多面主題(compound subject)들로서 아무리 세분된 말단의 主題도 앞으로 學問의 발전에 따라 보다 더 細分되거나 統合될 성질의 것이다. 細分되거나 統合된다는 意味는 分類表上的의 Array 는 물론 Chain 의 關係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뜻이다. 分類對象의 主題(文獻)가 '취할 主題들 간의 關係속에서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으며, 유동적이라는 것은 分類對象의 主題(文獻)가 바른 위치를 찾지 못한다는 뜻이다. 現象으로 나타난 主題의 細分과 統合의 樣相은 같은 수준의 Array 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같은 系統의 Chain 關係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現象으로 나타나는 知識의 生成의 生理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現象으로 나타난 主題(知識)를 가지고(기준으로 하여) 分類對象의 主題(知識, 文獻)의 妥當하고 바른 위치를 찾을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예 成功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는 일이 된다.

分類對象의 主題(知識, 文獻)의 妥當하고 바른 위치는 어떠한 主題이건 그것을 이루는 單位要素를 찾아내고 그 單位要素들의 妥當하고 바른 位置를 규명해 줌으로써 찾아줄 수 있다. 單位要素란 어느 主題에 포함되어 있거나 하나로 고정된 原素의 概念이다. 이 單位要素를 찾아내는 일이 主題를 分解하는 일이며, 이 單位要素를 基準으로 같은 것을 같은 것끼리 모아줌으로써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곧, ① 主題의 事實性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파악된 事實들(單位要素)을 論理的으로 놓는 일이, ② 論理的인 分類目錄에 대한 證據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위의 두가지 일 중에 먼저 해결할 일은 主題를 分解하여 그 事實性을 把握하는 일인데, DDC, KDC, LCC 로 文獻을 分類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文獻의 主題를 최소의 單位要素로까지 分解하지 않는다. 그들이 分類할 때 하는 일은¹³⁾ 몇 페이지 혹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긴 글을 나열해 놓은 저작자의 主題를 간단히 要約된 言語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分類表에서 나열하고 있는 語句와 같게 될까를 생각하여 여기서 얻은 用語에 해당하는 記號를 分類記號로 정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分類表에 나열된 用語들 중에 어떤 用語가 分類하려는 文獻의 內容을 가장 적절히 要約한 內容일 것인가를 찾아내어 分類記號를 分類表에서 정한대로 옮겨 적으므로써 모든 主題(知識) 속에서의 그 文獻의 位置를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分類表自體의 構成이 主題의 分解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천착을 통하여 우리는 타당하고 바르게 推理할 수 있는 分類構造가 구비할 두가지 側面이 실제의 分類構造에서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첫째로 分類構造를 계획할 때는 물론 文獻을 分類할 때도 主題를 區分하여 그보다 더 좁은 범위의 主題로 나누고 要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分解하여서 그 主題를 형성하는 單位要素로 규명함으로써 主題의 事實性을 把握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이 점을 主題分解의 妥當性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둘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分類構造의 構成要素(單位要素)들이 서로 올바른 論理的 關係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分類體系란(推理 혹은 論證의 結論에 해당함), 構成要素(單位要素, 推理 혹은 論證의 前提들)간의 關係가 이어져서 形成된 것이며, 그 關係들이 論理的일 때, 分類構造全體가 論理的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分類構造란 결국 우리가

13)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19th ed. — New York, Lake Placid Club: Forest Press, 1979. — Vol. 1, p. xxxix—xl.

前提로 취한 構成要素(單位要素)들과 동떨어진 별개의 다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分類構造의 構成要素와 構成要素들간의 相關關係 자체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分類構造의 構成要素間의 相關關係란 말할 것도 없이 分類構造의 排列을 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타당하고 바르게 推理를 돕는 分類構造의 또 하나의 條件은 그 構造를 構成하는 單位要素의 排列이 論理性을 띠고 있느냐 아니냐를 檢證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필자는 이 점을 分解主題의 排列의 論理性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2. 助記性

필자는 앞장에서 推理란 일종의 論理行爲이므로 檢索資料들이 單位要素라는 관점에서 分解될 것이고, 이 分解된 要素는 論理的으로 놓여져야 할 위치에 놓여져서 檢索者の 推理를 도울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펴려하였다. 이 두가지 일은 分類者가 分類를 할때나 分類體系 開發者가 分類表를 만들때 分類者가 分類할 資料를 對象으로, 혹은 分類體系 作成者가 知識을 대상으로 分解하고, 分解해서 얻은 構造的 知識의 順次(排列)를 고려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圖書館分類는 知識의 分解나 그 分解된 知識의 順次를 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한가지 記號를 채택하여 일정한 排列 順序를 결정하고 이 順序와 分解된 知識의 順次를 맞물려서 機械的인 順次的 番號體系 혹은 記號體系를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圖書館의 分類體系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圖書館分類體系는 知識體系와 이를 나타내는 記號體系가 聯合되어 있는 것이다.

이 聯合의 方法 여하에 있어서 記號體系속에 記憶助成法을 利用하는 技法을 사용하는 助記性을 포함시키면 檢索할 때 推理를 도울 수 있는 裝置가 된다. 다시말하면 圖書館分類體系를 知識體系와 記號體系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 앞장에서 언급한 主題分解의 妥當性이라든가 分解主題의 排列의 論理性이라고 하는 것은 知識體系가 利用者の 推理를 도울 수 있게 하는 要素이

며 本章에서 설명할 助記性은 記號體系가 利用者의 推理를 도울 수 있게 하는 要素이다.

記憶術은 원래 자체적으로 體制化되어 있지 않은 情報를 記憶하기 쉽도록 어떤 일정한 틀에 맞추어 構造化하고 그 틀을 記憶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引出되도록 하는 技法을 말한다. 예를 든다면 DDC에서 영국에는 2, 독일에는 3, 불란서에는 4라는 記號를 인위적으로 주어서 1, 2, 3, 4...라는 틀(記號體系)속에 分類하려는 地域을 構造化하고 이 記號體系의 틀을 記憶해 두었다가(영국은 2, 독일은 3, 불란서는 4하는 식으로) 만일 영어, 또는 영국문학의 記號를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길 때 記憶해 둔 記號體系의 틀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기호 2를引出해 내어 420은 영어, 820은 영국문학이라고 推理할 수 있도록 하고, 독일어, 독일 문학이 필요할 때는 430, 830을, 불어, 불란서문학이 필요할 때는 440, 840을 推理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分類構造에서 사용하는 記憶術은 여러 主題內에 散在하는 같거나 비슷한 特性을 분리해 내고 이를 일정한 記號體系의 틀에 構造化하여 分類表상에 삽입시켰다가 目錄利用時 혹은 主題分解時(이 두 경우가 圖書館目錄과 관련하여 推理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경우로 생각된다)에 이 記號體系의 틀을 이용하여 찾고자하는 主題를 探索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記憶術의 技法을 體系적으로 완벽하게 利用한 分類構造일수록 助記性이 풍부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助記性이 풍부한 分類構造에서는 分類目錄을 利用할 때 目錄利用者가 찾고자 하는 對象의 主題를 推理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DDC의 경우 2는 영국, 3은 독일, 4는 불란서로 構造化되어 있다. 이러한 틀(構造)에 의해 영어는 420, 독일어는 430, 불란서어는 440으로 推理하게 되어 있다. 이 論理에 의하면 영국역사는 920, 독일역사는 930, 불란서역사는 940으로 推理할 수 있도록 分類構造가 構造化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論理的 推理는 그럴지라도 실제의 分類構造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DDC 分類構造가 記憶術의 技法을 體系적으로 완벽하게

利用하도록 짜여질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만큼의 推理를 돕는 要素를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위에 든 예는 가장 간단한 경우이나 記憶術의 利用이 갖는 推理를 도와주는 役割은 찾고자하는 主題의 精確한 範圍를 아직 규명하지 못한 利用者들의 경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推理하여 찾을 수 있게 하는 道具로서 규칙적으로 전개되는 記號를 미루어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찾고자하는 主題의 精確한 範圍를 아직 규명하지 못한채 目錄을 利用하고 있는 利用者들에 맞추어 利用者의 推理를 도와주는 記憶術의 役割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目錄利用者は 그가 찾고자 하는 主題를 推理해 가는 과정에서 먼저 그 主題가 分類表의 어느 類, 어느 綱, 어느 目, 혹은 어느 細目에 해당할 것인가를 차례로 생각할 것이다. 그 생각의 結果 어느 綱이나 目으로 접근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이러한 결정은 그 分野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知識, 想像, 直觀的 感覺 등을 前提로 동원하여 推理한 結果로서의 豫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目錄利用者가 利用할 目錄의 分類構造가 記憶術의 技法을 利用하고 있고, 또 그가 目錄의 分類構造에 들어 있는 記憶術의 構造를 익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記憶術의 構造에 대한 知識도 함께 豫想을 이끌어 내는 前提로 동원될 것이다. 이때 前提로 동원된 知識, 想像, 直觀 및 記憶術의 構造에 대한 知識이 結論이라고 하는 意見이나 信念에 도달하는 교량은 언제나 前者가 後者の 證據로 제시되는 論理的 關係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前提로 동원된 記憶術의 構造 역시 推理하는 사람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論理化作業을 돕는 要素가 되는 것이다.

또 일단 어느 類나 目を 豫想하고 그 類나 目に 접근해서 目錄을 檢索하는 過程에 돌입했을 때도 그 目錄이 助記性을 가지고 있으며, 또 利用者가 그 記憶術의 構造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目錄利用者は 그가 찾고자 하는 分野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輪廓을 가지고 있는 探索중의 主題에서 記憶術의 構造에 나타나 있는 特性들을 分析해 내고

이 特性들을 나타내주는 分類記號로 推理의 方向을 尖銳化할 것이다.

IV. 結 論

分類目錄이 人間의 思考力을 動員하는 推理의 方法으로 資料를 查도록 하는 效果的인 檢索方法이라는 前提下에 分類目錄이 보다 더 확실하게 推理를 도울 수 있는 構造가 되려면 어떤 要素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먼저 推理란 무엇이며, 推理가 이루어지는 諸構成要素가 무엇인가를 檢討하였다. 推理란 前提가 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意見 또는 信念으로부터 結論이 되는 다른 意見 또는 信念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또 推理가 이루어지는 실제의 행위는 성격상 論理的 段階를 따라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證據와 結論 및 그 양자간의 論理的 關係를 포함하는 論證과 같은 要素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推理가 分類目錄을 利用하는 利用者의 頭腦活動의 過程을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推理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要素들은 分類目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目錄利用의 實際를 제시하고 여기서 目錄이 담당하는 役割을 추론함으로써 지적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는 主題分解의 妥當性, 分解主題의 排列의 論理性, 助記性으로 지적되었다. 이 要素들은 물론 分類構造를 만드는 材料自體는 아니다. 分類構造를 形成하는 材料는 主題(知識)이며, 이 主題들의 分解가 妥當性의 原理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分解된 主題가 論理性의 原理에 의해 排列되고, 또 分類構造에 사용하는 記號는 助記性의 原理에 입각하여 부여됨으로써 推理를 돕는 目錄, 推理를 돕는 分類構造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分類目錄의 推理를 돕는 要素는 현존하는 여러 종류의 分類構造 중에서 S.R. 랭가나단의 콜론 分類構造가 가장 충실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列舉式分類表를 두 종류(DDC, LCC)나 考索하여 전 세계에 보급한 바 있는 미국계 分類學者들도 콜론分類表가 현대적 構造原理에 의해 짜여졌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本論文에서 규명한

要素를 複合分類表가 포함하는 까닭이며, 그렇기 때문에 複合分類表가 論理的인 分類表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複合分類表의 構造原理에 대한 研究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 STUDY OF INFERENCE IN CLASSIFIED CATALOGUE

Soyoung Yoo

The factors which can help the library users trace the specific subject that she or he needs are most important, when they are not sure of what they need exactly in front of a classified catalogue.

This study is about what the factors are and how the factors affect the inference of users' reasoning structure.

Since the classified catalogues are reflected by the classification structure, naturally the logic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becomes the focus of the study.

This study concludes the classification system which enables the library users to use their reasoning capabilities, viz. the classification system which can help the users trace the specific subject even as they are not sure of the exact subject they need has following factors in the system.

1. It should have the validity based on the facts in the component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2. It should be logically arranged when the components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re placed in due sequence.
3. The not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based on mnemonics.

The reason is that the indispensable factors in the formation of inference of human reasoning structure are:

1. the premises which are based on the facts and
2.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emises and conclusions which are induced from the premises.